

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n the Children's Suicidal Ideation

김선숙*, 정정호**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n Suk Kim(ksunsuk@ut.ac.kr)*, Jeong Ho Jeong(jeong_ho@chungwoon.ac.kr)**

요약

아동의 자살생각이 실제 자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아동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예측 변인으로 대부분 아동의 우울 변인을 사용하였고 부모의 우울을 포함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자살생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동안 확인된 바가 없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에 있는 아동 512명과 그 부모의 응답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모의 삶의 만족도만이 아동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모의 우울이 아닌, 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자존감을 매개하지 않고도 아동의 자살생각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측면이 향후 아동 자살예방 노력 및 개입 프로그램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중심어 : | 아동 자살생각 | 부모 삶의 만족도 | 부모 우울 | 아동 자아존중감 | 구조방정식 | 매개효과 |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clarify the relation of children's suicidal ideation and parental depression/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esteem in child. With regard to suicidal ideation in children, most studies have used children's depression as predictor, not parental depression. Similarly, parental life satisfaction have not been included in spite of its general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were examined in 512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7th Korean welfare panel data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showed that the maternal life satisfaction wa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suicidal ideation of children, no hav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esteem in child.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work,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 keyword : | Suicidal Ideation | Children's Self-esteem | Parental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 SEM | Mediation Effect |

I. 서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자살은 매우 심각한 발달상의 위기이다. 자살은 자살행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살시도, 자살의도, 그리고 자살생각을 포함하는 일련의 자살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자살생각은 '죽음, 자살 그리고 자해적 행동과 관련된 생각 혹은 사고'이며, 심각한 정도의 자살생각은 자살이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하고 수용가능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50]. 자살생각 그 자체는 당장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미 많은 선행연구(예를 들어, [24][47][39] 등)에서 자살생각이 실제 자살로 연결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고 좀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해 내지 않는 자살생각을 미리 발견해내고 이 위험집단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행동을 '자살생각에서부터 이어지는 자살시도와 죽음에 이르는 자살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자살생각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초중고생들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이들이 전체의 84.6%이나 되었는데, 그 중 특히 고등학생은 90% 정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0]. 또 윤성림과 윤진(1993)에서는 서울시 고등학생 중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전체의 55.8%인 354명이었는데, 남학생의 50.2%, 여학생의 61.1%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7]. 박영주 외(2007)에서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같은 척도를 이용한 국외 연구에서 심각한 자살생각으로 인해 입원한 정신과 환자(평균 9.43점)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평균 8.27)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들의 자살생각 및 자살경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11].

점점 높아지는 자살률과, 이러한 추세가 점점 저연령화 되어가는 현실은 아동 자살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노력과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에 대비해 만들었던 2005년도의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은 예산 및 인력상의 문제로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는 지역별 혹은 기관별로 크고 작은 자살예방노력이 산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수준인 듯하다.

한편, 지금까지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상당수 선행연구들이 학교폭력, 따돌림 혹은 아동학대에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거나, 독립 변인으로 부모 측면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특성(예를 들어, 부모의 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전국 규모의 일반 아동을 포함하는 연구를 하였고, 또 부모 특성 그 자체가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른 많은 연구들과 달리 부모의 특성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아동의 인식')를 활용하지 않고, 부모의 직접적인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 자살 및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일관되게 다루어져 온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부모의 특성(부모의 삶의 만족도, 우울)은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부모의 특성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아동 자살생각

자살생각이나 시도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1 그리고 이러한 지역 프로그램들은 대개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모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즉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여)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상당한 위험요인은 명백하다. 모든 자살이 그렇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의 자살은 유가족이나 친구 등이 감당해야 하는 정서적 상처와 어린 나이의 사망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상실만을 고려해도 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44]. 일반적으로 자살관련 연구들에서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살을 위한 수단에 대한 생각까지를 포함하고, 자살시도(suicidal attempt)는 고의적이고 실제적인 자해를 포함한다. 이를 행동적 차원으로 보면 자살생각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은 심리적 증상을 말하고, 자살시도는 표출된 자해행동을 말한다[21].

자살생각은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각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자살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4][5][20][23][28][37][39][47][54].

Lyon 등(2000)은 청소년 자살 시도자와 비시도자를 비교함으로써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42], 임인순(2004)도 자살생각이 청소년 자살예측의 주요 변인임을 설명하였고[19], 신민섭·박광배·오경자(1991) 역시 자살생각이 많을수록 자살시도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 변인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14].

지금까지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로는 성별,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특성[4][29][34]; 부모자녀관계,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에 대한 만족도, 가정에서의 폭력경험, 가계소득 등의 가정환경 특성[2][38]; 학습스트레스, 친구관계, 학교폭력 경험, 교사와의 관계 등 학교환경 특성 등[1]이 꼽히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변인들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많은, 강력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특성이 아닌 부모가 가진 부정적 혹은 긍정적 특성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물론 부모가 가진 많은 특성들이 부분적으로는 부모-자녀 관계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특성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게다가

가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와 달리, 부모의 특성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예컨대 이에 대한 '아동의 인식')를 활용하지 않고,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직접적인 응답결과를 활용하였다.

2. 부모특성과 아동의 자살생각

청소년 자살의 주요 예측변인인 부모와 또래, 학교환경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38].

이러한 생태체계적 요인들 중 통상적으로 아동 자살과 관련된 가족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요인들은 가족형태의 구조적 특성과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의 응집성 혹은 가족에서의 폭력 혹은 학대경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아동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환경상의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제외하면 아동의 가족관련 요인이 가장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Beautrais(2003)에서는 부모의 별거, 이혼 및 부모자녀 사이의 낮은 유대가 자살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자살집단의 40%가 부모의 별거 혹은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2]. Cho & Haslam(2009)에서도 부모와 정서적 유대가 높으면 자살관련 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26], Gibb et al.(2001) 역시 부모의 신체, 언어,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살생각과 자살위험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

한편, 이 연구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체계적 요인들 중 부모의 주요 특성 그 자체가 아동의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요인으로서의 부모 우울과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가정이라면 그 중에서도 부모의 특성은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부모의 특성 중 우울은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8][43][45][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다루어진 적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자살생각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우울이 아동의 자살생각과 연관된 주요 변수로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3], 대부분의 경우 이는 아동의 우울을 의미하고 이 연구에서처럼 부모의 우울을 다루고 있지 않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부모 우울은 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가족과정 모델의 설명처럼 많은 가족내 기능수준(예를 들면,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부모-자녀 관계 혹은 가족응집력, 혹은 부부간 갈등이나 아동학대 등)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모의 우울 그 자체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쳐 다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모 우울 그 자체가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많은 과정에 대한 탐색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일단 부모 우울 특성이 아동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부모 우울이 아동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이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위험요인에만 집중하여 자살의 위험성을 파악하려 하다보면, 위험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 혹은 특정 요인을 간과할 수 있게 되기 쉬운데, 아동의 자살예방 노력의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삶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효과를 중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우울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자살생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부모의 우울처럼 부모의 삶의 만족도 역시 많은 과정을 거쳐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역시 탐색적 수준에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자살생각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3.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살에 대한 강력한 그리고 가장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보호/매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부모의 특성이 아동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매개 변수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아동 자살에 대한 개인 차원의 보호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Sharaf 등(2009)에 의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와 좌절 등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살행동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가족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보다 낮은 청소년의 경우 그 영향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가족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삶의 도전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보호요인이라고 한다[53]. 또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을 약화시키는데,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자기 수용, 자아 존중,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야기하고 이러한 특성이 도전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맥락에서 자기와 미래에 대한 패배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능력을 높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낮춤으로써 자살 행동에 반하는 예방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Eskin et al.(2007)과 Groholt et al.(2005)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강력한 내적 보호요인임을 보고하고 있으며[29][34], Peter et al.(1994) 역시 자아존중감이 미래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가장 필요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다[46]. 이와 유사하게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홍영수의 연구(2004)도 있다[21]. 또 노혜련 등(2012)에서도 긍정적 자아인식이 학교의 관심 및 지지와 더불어 중요한 보호요인이었다[1][7].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 변수로 포함시켜 부모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라는 특성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여 주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확인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도 및 우울과 같은 부모의 특성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아동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부모의 특성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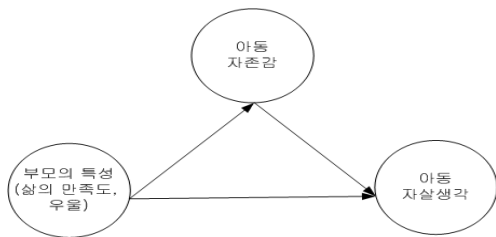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이 연구는 부모 특성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에 의해 2011년에 측정된 제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². 분석대상은 7차년도에 최종 조사된 아동 512명과 그 부모를 포함하였다.

3. 주요변수

3.1 종속변수 : 아동자살생각

아동의 자살생각은 평소에 자살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Reynolds(1987)의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총 15문항)를 활용하여,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언제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

했다’로 구성되어 있다[48]. 각 문항에 대해 “전혀없다: 0점, 지난달 없다: 1점, 한달 1번: 2점, 한달 2-3: 3점, 일주일 1번: 4점, 일주일 2-3번: 5점, 거의 매일: 6점”으로 측정하여 총 36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평소에 자살을 생각하는 횟수가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 자살생각의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alpha=.740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독립변수 : 부모의 삶의 만족도, 우울

부모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통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부모의 우울은 조사일 직전 1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11개 문항(예를 들어, ‘식욕이 없다’,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 등)의 CESD-11(Radloff, 1977)을 사용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49],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항간 신뢰도는 부의 경우 Cronbach’s alpha=.993, 모의 경우는 Cronbach’s alpha=.9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 또는 모의 우울변수는 다변량 분석을 위한 조건 중 정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3 매개변수 :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조사하였으며,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3문항(예를 들어,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등)을, 4점 척도(0~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2]. 이 중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등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 5개는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총 3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아동 자아존중감의 문항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6이었다.

3.4 그 밖의 변수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아동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

² 한국복지패널은 1, 4, 7차년도에 아동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 중 가장 최근자료인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적으로 아동의 성별, 빈곤유무, 가족구조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동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부호화하여 사용하였으며, 빈곤유무는 균등화 소득에 따라 가구를 빈곤=1, 비빈곤=0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가족구조는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수를 통하여 양부모=2, 한부모=1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자살생각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으로써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아동의 성별은 전체 512명중 여성이 248명(48.4%), 남성이 264명(51.6%)이었다.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은 복지패널이 처음 시작된 2004년 당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7년간 추적조사를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7차년도 조사 당시에는 만 15-19세인 것을 알 수 있다. 7차년도 조사당시 최종 확인된 512명의 아동 중 377명(73.6%)은 양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었으며, 100명(19.5%)는 한부모 가정에서, 그리고 65명(12.7%)의 아동은 조손가정이나 기타 친인척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은 균등화소득을 사용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의 377명(73.6%)이 일반가구, 135명(26.4%)이 저소득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가구가 많은 이유는 복지패널이 빈곤가구를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통계량(단위:명)			
	N	평균(SD)	최소값	최소값
아동성별	남자	264(51.6)		
	여자	248(48.4)		
	합계	512(100.0)		
가족구조	양부모	347(67.8)		
	한부모	100(19.5)		
	조손가족 등	65(12.7)		
소득에 따른 가구구분	일반가구	377(73.6)		
	저소득가구	135(26.4)		
	합계	512(100.0)		
아동나이	425	16.97(.85)	15	19
아동 자살생각	425	.34(.71)	0	5.0
아동의 자아존중감	512	2.90(.46)	1	4.0
log(부의 우울)	347	.24(.34)	0	2.2
log(모의 우울)	415	.25(.47)	0	2.2
부 삶의 만족도	357	3.41(.72)	1	5
모 삶의 만족도	410	3.45(.69)	1	5

2. 부모특성이 아동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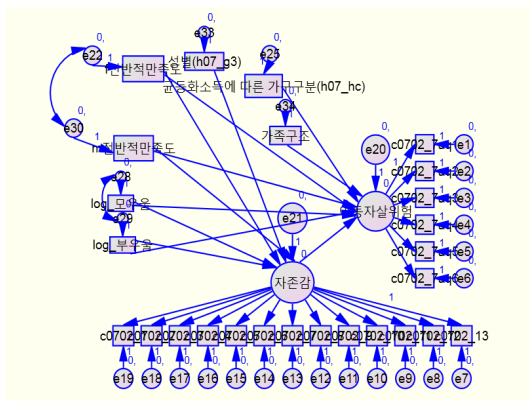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아동 자살생각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으로써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분석결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 중, 특히 모의 삶의 만족도만이 아동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 아동이 자살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우울, 특히 모의 우울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아동 자살생각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연구자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 특히 모의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강력한 보호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 삶의 만족도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아동의

자살관련 연구들에서 보호요인으로 다루어졌던 적이 거의 없었던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존감을 매개하지 않고도 아동의 자살생각 수준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아동을 위한 자살예방 노력 및 개입 프로그램에 부모를 참여시키고자 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거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각을 오히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자살예방을 위한 부모개입서비스를 계획할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내용을 차별화할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동의 성별과 자살시도 혹은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는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chi^2=1285.222(df=292), (p=.000), CFI=.837, TLI=.805, RMSEA=.082$

그림 2. 부모특성이 아동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3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부모 및 기타 아동의 환경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해 매개한다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것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나 부모의 우울정도를 매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아동의 성별, 가족구조, 저소득 가구 여부와 아동의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만 발견되었다. 즉, 남자아동일수록 자살생

V. 결론 및 제언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 요인 및 보호요인의 탐색은 이러한 요인들이 포괄적인 자살 예방 개입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될 때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아동의 자살생각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보다 즉각적으로 아동의 자살생각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가능한 변인들- 즉, 아동의 개인적 혹은 심리적 특성, 그리고 가족관계 및 또래, 학교환경 요인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보다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의 특성에 관한 변인으로 범위를 넓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비록 발달과정에 따라 그 활동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면서 상대적 영향력이 줄어들지만, 아동기에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고 따라서 부모가 가진 보다 다양한 특성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연구자들은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발달에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 즉 부모의 우울을 위험요인으로,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보호요인으로 설정한 후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살생각에 매우 강력한 보호기제로 확인된 바 있는 아동의 자

3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존감이나 자살위험과 같이 잠재변수에 대한 관찰변수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관찰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그림 2는 AMOS프로그램에서의 구조모형 결과를 그대로 캡처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잠재변수와 관찰변수와의 관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 우울, 아동의 자살생각 등의 잠재변수들은 그 잠재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잠재변수들에 의해 모두 유의미하게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존증감이 부모의 우울이나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많은 아동발달 영역에서 위험요인으로서 영향력이 확인되어 오던 부모의 우울은 예상과 달리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요인으로 생각하던 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 자존감을 매개하지 않고도 아동의 자살생각 수준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의 자존감은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자살생각을 낮추는 직접적이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 두 요인들과 아동의 자살생각 사이를 매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자살생각 수준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추후 연구를 통하여는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 즉 모의 삶의 만족도가 아동의 자살생각 수준을 낮추는 다른 요인을 매개할 가능성에 대한 탐색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부모 우울이 아동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 영향요인들과 함께 아동 부모, 특히 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려는 노력이 보다 포괄적인 아동 자살예방 개입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36-247, 2013.
- [2] 김기환, 전명희,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9권, pp.127-152, 2010.
- [3] 김미애,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4] 김소영, 홍세희, “초기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유형분류와 예측,”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 pp.251-275, 2012.
- [5] 김지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261-268, 2012.
- [6] 김현주, “청소년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제27권, pp.69-93, 2008.
- [7] 노혜련, 이종익, 전구훈, “초·중학생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2호, pp.335-363, 2012.
- [8] 문경주, 오경자,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모자 상호작용 관찰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4권, 제1호, pp.41-55, 1995.
- [9] 문동규, 김영희,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의 메타회귀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호, pp.59-83, 2012.
- [10] 박경애, 구본용, 김원중, 송중용,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3)*,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3.
- [11] 박영주, 유호신, 한금신, 권정혜, 김한겸, 조윤정, 윤지원, 이수정, 임여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분노·자살생각 실태조사 및 학교기반 분노관리 프로그램의 적용*,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2007.
- [12] 박재연,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3] 박지영,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6권, pp.203-231, 2010.
- [14]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9권, pp.1-19, 1990.
- [15]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

- 소년들의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 회지, 제10권, 제1호, pp.286-297, 1991.
- [16] 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제 14권, 제1호, pp.35-43, 2008.
- [17] 윤성림, 윤진,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 인-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특성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6권, 제1호, pp.107-120, 1993.
- [18] 이근무, 김진숙,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 호, pp.109-134, 2010.
- [19] 임인순,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방 식이 우울, 무망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 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0] 최인재,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 자녀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9호, pp.105-130, 2010.
- [21] 홍영수,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 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22] A. L. Beautrais, “Suicide in New Zealand II: a review of risk factors and prevention,” New Zealand Medical Journal Vol.116(1175), 2003. URL: www.NZMA.org.nz/journal/116-1175/461.
- [23] A. T. Beck, M. Kovacs, and A. Weissman, “Assessment of suicidal idea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7, pp.343-352, 1995.
- [24] A. L. Bermna and D. A. Jobes, “Suicide prevention in adolescents(age 12-18): A population perspectiv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ur, Vol.25, pp.143-154, 1995.
- [25] A. C. Brown, I. N. Sandler, J. Tein, X. Liu, and R. A. Haine, “Implications of Parental Suicide and Violent Death for Promotion of Resilience of Parentally-Bereaved,” Children Death Studies, Vol.31, pp.301-335, 2007.
- [26] Y. B. Cho and N. Haslam, “Suicidal Ideation and Distress Among Immigrant Adolescents: The Role of Acculturation,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9, No.4, pp.370-379, 2009.
- [27] M. T. Compton, N. J. Thompson, and N. J. Kaslow, “Social Environment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e Attempt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s: The Protective Role of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40, No.3, 175-185, 2005.
- [28] E. F. Dubow, D. F. Kausch, M. C. Blum, J. Reed, and E. Bush,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8, pp.158-166, 1989.
- [29] E. Eskin, K. Ertekin, C. Dereboy, and F. Demirkiran, “Risk factors for and protective factors against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in Turkey,” Crisis, Vol.28, pp.131-139, 2007.
- [30] R. D. Everall, K. J. Altrows, and B. L. Paulson, “Creating a Future: A Study of Resilience in Suicidal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84, pp.461-470, 2006.
- [31] D. M. Fergusson, A. L. Beautrais, and L. J. Horwood, “Vulnerability and resiliency to suicidal behaviours in young people,” Psychological Medicine, Vol.33, pp.61-73, 2003.
- [32] B. E. Gibb, L. B. Alloy, L. Y. Abramson, D. T. Rose, W. G. Whitehouse, and M. E. Hogan, “Childhood maltreatment and college students’ current suicidal ideation: a test of the

- hopelessness theory,” *Suicidal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31, No.4, pp.405-415, 2001.
- [33] R. D. Goodwin, A. L. Beautrais, and D. M. Fergusson, “Familial transmission of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evidence from a general population sample,” *Psychiatry Research*, Vol.126, pp.159-165, 2004.
- [34] B. Groholt and O. Ekeberg, “Prognosis after adolescent suicide attempt: mental health, psychiatric treatment, and suicide attempts in a nine-year follow-up study,” *Suicide Life-Threatening Behaviour*, Vol.39, No.2, pp.125-136.
- [35] B. Groholt, Ø. Ekeberg, and T. Haldorsen,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what predicts future suicidal acts?,” *Suicide Life-Threatening Behaviour*, Vol.36, No.6, pp.638-650, 2006.
- [36] B. Grøholt, O. Ekeberg, L. Wichstrøm, and T. Haldorsen, “Suicidal and nonsuicidal adolescents: different factors contribute to self-esteem,” *Suicide Life-Threatening Behaviour*, Vol.35, No.5, pp.525-535, 2005.
- [37] K. Hawton, E. Arensman, D. Wasserman, A. Hulten, B. U. Bille, T. Bjerke, P. Crepet, E. Deisenhammer, A. Kerkhof, L. D. De, K. Michel, A. Ostamo, A. Philippe, I. Querejeta, R. E. Salander, A. Schmidtke, and B. Temesvary,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mpted suicide and suicide rates among young people in Europ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52, pp.191-194, 1998.
- [38] S. Kidd, C. C. Henrich, K. A. Brookmeyer, L. Davidson, R. A. King, and G. Shahar, “The social context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 peer, and school social relatio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36, No.4, pp.386-395, 2006.
- [39] G. Kumar and R. A. Steer,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 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25, pp.339-346, 1995.
- [40] S. J. Kuramoto, D. A. Brent, and H. C. Wolcox, “The Impact of Parental Suicide on Child and Adolescent Offspr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ur*, Vol.39, No.2, pp.137-151, 2009.
- [41] S. J. Kuramoto, E. A. Stuart, B. Runeson, P. Lichtenstein, N. Langstrom, and H. C. Wilcox, “Maternal or paternal suicide and offspring’s psychiatric and suicide-attempt hospitalization risk,” *Pediatrics*, Vol.126, No.5, pp.1026-1032, 2010.
- [42] M. E. Lyon, M. Benoit, R. M. O’Donnell, P. R. Getson, T. Silber, and T. Walsh, “Assessi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Risk for Suicide Attempts: Attachment Theory,” *Adolescence*, Vol.35, No.137, pp.121-134, 2000.
- [43] C. Martins and E. A. Gaffan, “Effects of early maternal depression on patterns of infant - other attachment: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1, pp.737-746, 2000.
- [44] S. A. Murphy, C. Johnson, and J. Lohan, “Challenging the myths about parents’ adjustment after the sudden, violent death of a child,”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5, pp.359-364, 2003.
- [45] L. Murray, A. Fiori-Cowley, R. Hooper, and P. Cooper, “The impact of postnatal depression and associated adversity on early mother - nfant interactions and later infant outcome,” *Child Development*, Vol.67, pp.2512-526, 1996.
- [46] M. L. Peter, R. Paul, and R. S. John,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2, No.2, pp.297-305.

[47] C. R. Pfferrer, G. L. Klerman, and S. W. Hurt, "Suicidal children grow up: Rates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during follow up," *Journal of Amrican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Vol.32, pp.106-113, 1993.

[48] C. R. Pfeffer, P. Stokes, and R. Shindledecker, "Suicidal behavior and hypothalamicpituitary-adrenocrotical axis indices in child psychiatric patients," *Biological Psychiatry*, Vol.29, pp.909-917, 1991.

[49]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1, pp.385-401, 1997.

[50] W. M. Reyhol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1987.

[51] W. M. Reyholds, *Adult 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1991.

[5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53] A. Y. Sharaf, E. Thompson, and E. Walsh, "Protective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on Suicide Risk Behaviours among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Vol.22, No.3, pp.160-168, 2009.

[54] D. Stein, E. Witztum, D. Brom, A. K. DeNour, and A. Elizur,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their psychosocial background and suicidal tendencies," *Adolescence*, Vol.27, pp.949-959,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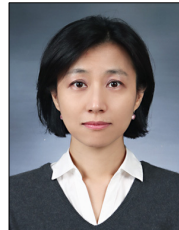
[55] M. M. Weissman, V. Warner, P. Wickramaratne,

D. Moreau, and M. Olfson,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10 years la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54, pp.932-940, 1997.

저 자 소 개

김 선 숙(Sun Suk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아동권리, 사회복지실천

정 정 호(Jeong Ho Jeong)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발달, 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